

「열두 제자를 세우셨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절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3-15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든자를 고치시고,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안식일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그 권위있는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들을 납득시키실 뿐 아니라, 귀신을 복종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제압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까지 군림하시는 전대미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람들은 「권위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며 놀라는데, 그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 계신다는 것을 듣고」, 갈릴리, 유다, 예루살렘, 게다가 요르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에서도 「큰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 지라」(마가복음 3:7-8)

이렇게 갈릴리에서 한차례 선교사역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13절)

여기에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의 기준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서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능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될만한 능력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몸가짐이 바르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제자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전도사역에 공헌을 한 공로자를 제자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두터운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전도사역을 펼쳐 나가고,
후에는 그리스도 교회를 지도해 갈 사람이어야 하기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인격과 능력, 신앙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당신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 즉 「뜻」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지배원리였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에 의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빼고는, 좋은 인격도 훌륭한 능력도 두터운 신앙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의 실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14절)

「열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을 사도로 이름지으셨다」라고 보충한 사본도 있습니다.
「임명하다」는 통상「행하다, 만들다」라고 번역되어집니다.

보충되어진 말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열둘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지으셨다」

세명의 제자한테는 본명과 다른 이름도 지어주시는데,
「열둘」의 임명은 새로운「창조」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열둘은 지금까지 예수님뒤를 졸졸 따라왔던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사도」로서 임명하시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사도」로서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임무와 직권을 갖고 파견되는 사자, 대사, 특사」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어,
예수님의 임무와 직권을 갖고 파견되는, 「예수님의 대사, 특사」, 그것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둘을「사도」로 뽑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14-15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위를 갖도록,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다. 」

이 말씀에서 알수 있는 두가지 사실은,

하나는, 열두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둘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보내진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다 중요합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으면서 예수님과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행하심, 정의, 긍휼을 할 수 있는 한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되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배운 예수님의 뜻을 충실히 행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나가서 해야 하는 사역으로서, 두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역을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는 간단하게 「목소리를 내서 선언하다, 공포하다, 연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1:14-15절) 와,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보다 명확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함께 제자들의 또 다른 사역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부하에 해당합니다.

귀신은 가버나움 회당을 지배하고,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거라사인 무덤에 사는 귀신들린 자는, 군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었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파괴합니다.

악령이 자기 세상인 양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악령세계는 패닉상태가 되었고, 귀신들도 아직 영원한 멸명 속으로 넣지 말것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령의 지배가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됨으로, 이 세계가 회복되어져 감을 의미합니다.

그 회복의 표시가,

예를 들며,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귀신들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복음선교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물며 전도를 위해 뿌리는 모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선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선교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잠잠하고, 이 사람한테서 떠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귀신은 도망가고, 죄사함을 받고, 병이 나으며, 폭풍은 잠잠해지고,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현을 표현합니다.

악령이 파괴한 이 세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 세계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의한 이 세계의 재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에서는, 귀신은 도망가고, 병자는 낫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사람들은 배불렀습니다.

이것들은 죄로 저주받은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 신천지, 천국에는 악령도 병도, 죽음도, 굶주림도 결핍도 멸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야스쿠니 문제도 없습니다.

죄도 저주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의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뿐이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풍성히 빛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며,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이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고, 아무리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병고침이나 사역이 허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지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저주받은 이 세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 복음대로,

죄에 의해 저주받은 이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되어 회복되가는 모습을 실현하는 사명이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배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죄에 의해 저주받은 이 세계를 새롭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